

## 정답 및 해설

### 공통

1	④	2	⑤	3	⑤	4	②	5	③
6	①	7	④	8	⑤	9	④	10	④
11	②	12	①	13	②	14	③	15	④
16	⑤	17	③	18	⑤	19	①	20	①
21	②	22	⑤	23	③	24	④	25	⑤
26	④	27	④	28	③	29	①	30	④
31	④	32	②	33	①	34	③		

### 화법과 작문

35	②	36	④	37	①	38	②	39	④
40	④	41	④	42	③	43	⑤	44	③
45	①								

### 언어와 매체

35	①	36	①	37	②	38	②	39	⑤
40	④	41	⑤	42	①	43	①	44	④
45	⑤								

#### 1. ④

읽기 준비도는 부모나 교사의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습득된다.

- ① 문식성의 정의에 해당한다.
- ② 발생적 문식성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읽기 준비도와 발생적 문식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되어 있다.
- ⑤ 유아기의 문식성 발달 과정에 포함된다.

#### 2. ⑤

발생적 문식성은 자연스러운 활동을 통한 언어 습득을 의미하는데, 단어 카드를 사용해 어휘를 외우는 활동은 체계적인 학습에 가까운 읽기 준비도에 해당한다.

- ① 읽기 준비도는 부모가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활동을 포함한다.
- ② 교사가 책에 쓰인 낱말에 대해 설명하며 아동의 어휘 인식을 높이는 활동은 읽기 준비도에 해당한다.
- ③ 읽기 준비도는 부모나 교사의 개입으로 어휘력과 문자의 개념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일상에서 특정 어휘를 접했을 때, 이 단어를 묻고 부모가 설명해주는 활동은 읽기 준비도에 해당한다.
- ④ 발생적 문식성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언어 등을 습득하는 활동이다. 아이가 일상생활 속 애니메이션의 노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고 즐기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

#### 3. ⑤

3문단에서 발생적 문식성은 '읽기 준비도에 비해 자유로운 활동에 의한 문식성 형성 과정'이라고 하였다. 응원가를 따라 부르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발생적 문식성 활동이며,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을 따라 읽는 활동보다 자유도가 높은 문식성 형성 과정에 해당한다.

- ① 간판의 글자를 묻고 부모가 설명해주는 활동은 체계적인 학습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읽기 준비도에 가깝다.

② 어린이집에서 책을 따라 읽는 활동은 기초적인 읽기와 문자 습득을 돕는 활동으로, 유네스코가 정의한 문식성 개념 중 이해, 해석 능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④ 친구와의 대화는 발생적 문식성의 중요한 요소로, 소리 내어 따라 읽는 것과는 다른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 과정이다.

#### 4. ②

기본권의 충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의 원칙이다.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이것이 공익적 목적이 크다면 명예 훼손의 당사자는 사생활을 보호 받을 자유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 ① 기본권이 충돌할 때 내용이 달라야 한다는 설명은 없다. 오히려 동일한 내용의 기본권이라도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면 충돌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5문단에 따르면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항상 법률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를 공정성이라 하며,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④ 초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는 법률을 초월하여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앞선 선지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그 제한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⑤ 1문단에 따르면 기본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 기관은 상황에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호 대상은 국민에 해당하지, 국가 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③

비교형량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의 원칙이다. 이는 공익이 손실보다 큰 것이므로, 여러 대안을 고려하였다면, 한 쪽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더라도 이 조치를 실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4문단의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때, 제한의 정도가 크다면 법원의 재량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권의 제한 조치를 행정청이 실시하더라도 법원의 재량에 의해 그 제한 조치를 금지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 조치를 금지할 수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2문단에 따르면, 기본권의 충돌시에는 어떤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비례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 제한으로 가져오는 공익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따른 손해보다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이다. 2문단에서 볼 수 있듯이 전염병이 전파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이라면 이는 기본권의 제한을 실행할 수 있다.
- ④ 5문단에 따르면 기본권 제한의 결정은 공정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특정 집단에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그 근거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⑤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합리적이라도 제한을 실시하려면 행정청은 최대한 숙고 후에 이를 실행해야 하며, 기본권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 만약 모든 가능한 대안을 고려했음에도 충돌하는 두 기본권 중 하나를 과도하게 제한해야 한다면, 행정청은 기본권 제한 조

치를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숙고 후에 제한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6. ①

비례의 원칙은 이익이 손실보다 큰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전염병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보다 우선시된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을 지킨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② 행위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동과 모임이 전염병을 확산하는 원인이 된다는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논의 범주가 맞지 않다. ㉠은 대안을 모두 검토했을 때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므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절차적 공정성은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의 논의 범주와 맞지 않는다.

⑤ ㉠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법적으로 기본권을 보호받는다라는 진술은 ㉠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 7. ④

권리의 중요성 평가는 각 기본권 중에 더 중요한 기본권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4번 선지에서는 재산권의 두 기본권 주체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즉 재산권이라는 같은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므로, 다른 기본권 중에 중요도를 평가하는 권리의 중요성 평가가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다.

①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면 23조 2항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재산권의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역으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게 행사한다면 재산권을 제한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은 당연히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게 행사할 때에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② 12조 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가 있다면 처벌, 보안 처분, 강제노역을 통해 국가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12조 1항의 하위 법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행정청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규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4문단에 따르면 적법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법원은 재량에 따라 기본권 제한을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개인의 행복추구를 보장하는 제10조에 저촉된다고 보는 견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⑤ 12조 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가 있다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를, 23조 2항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권의 행사는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조항은 모두 상황에 따라서 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 8. ⑤

2문단에 따르면 혈액은 적당한 점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문제를 유발한다. 혈액 속 점도가 낮으면 응고인자의 부족으로 혈액이 혈관 밖으로 분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 혈액 점도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비뉴턴 유체와 달리 뉴턴 유체는 속도의 기율기에 해당하는 전단율에 대해 점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4문단에 따르면 원뿔의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단율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전단응력은 전단율에 점도를 곱한 값이므로, 유체 흐름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따라서 원뿔을 회전시키는 것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전단응력이 커지도록 할 것이다.

④ 콘플레이트 회전법은 회전속도에 따라 다양한 전단율에서 혈액의 점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는 회전 속도에 따라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스캐닝 모세관법에 비해 혈액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 9. ④

전단응력은 전단율과 점도를 토대로 계산되며, 혈액의 비뉴턴 특성을 고려할 때 혈액 점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단응력을 고려해야 한다. 즉 전단율의 변화에 따라 점도가 달라진다면, 전단율을 고려한 계산인 전단응력을 토대로 측정해야 좀 더 정확한 점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① 혈액 점도가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은 맞으나, ㉠은 점도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이유이므로 논의 범주에 맞지 않는다.

② 모세관의 물리적 특성이 점도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모세관의 물리적 특성이 변화한다는 진술은 지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③ 온도가 혈액 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만, 이는 ㉠까지 고려한 검사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즉 이는 ㉠의 이유가 아니라, 이후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은 혈액 점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점도의 물리량에 따라 저항이 달라지는 것이 전단응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보는 아니다.

## 10. ④

음이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더라도, 저전단율에서 혈액의 점도가 반드시 정상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혈액은 비뉴턴 유체이므로 전단율에 따라 점도가 변할 수 있다. 즉 고전단율에서 점도가 높게 측정되더라도 저전단율에서는 점도가 정상 범위로 측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혈액의 움직임 특성에 따라 점도가 전단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임을 뜻하는 것으로, 혈액 점도의 정상성과 고전단율에서의 높은 점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① 스캐닝 모세관법은 혈액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점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적절하다.

② 콘플레이트 회전법은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단율이 높아진다. 즉 고전단율에서 혈액의 점도가 높다면 원뿔의 회전 속도가 빨라서 전단율이 높아진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스캐닝 모세관법에 비해 콘플레이트 회전법은 다양한 회전속도를 통해 더 정밀하게 혈액의 점도를 측정한다. 즉 점도는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값이 콘플레이트 회전법으로 검사했을 때 정상 범위로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콘플레이트 회전법은 스캐닝 모세관법보다 다양한 진단율을 측정할 수 있어 점도 계산의 정확도가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혈액 채취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콘플레이트 회전법을 사용했을의 검사가 스캐닝 모세관법을 사용한 갑의 검사에 비해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11. ㉔  
조회(照會)는 ‘어떠한 사항이나 내용이 맞는지 관계되는 기관 등에 알아보다’의 의미를 가진다.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하다’의 의미로 쓰인 ㉔와 교체하여 쓰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12. ㉑  
2문단의 ‘대중의 소비 패턴에 매스미디어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사회는 획일화·동질화의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에서 미디어가 대중의 소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판단 결과를 X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㉔  
‘내부지향형 사회’는 ‘가족 안에서 학습된 도덕과 가치관이 행위 기준이 되는’ 사회이다.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학습한 가치관이 아닌, 가족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므로 내부지향형 사회에 대한 설명이 틀렸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㉓  
<보기>는 정치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으로 지역 사회의 입장을 들고 있다. 그러나 리스먼은 매스미디어로 인해 대중들이 정치에 무관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입장에서는 리스먼이 정치에 대한 관심에 지역 사회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는, 달리 말해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① 리스먼이 부모의 역할보다 또래집단의 역할이 커지면서 타인지향형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러한 타인지향형 사회가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리스먼은 정치적 무관심이 민주주의 체계에 위협이 올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민주주의 체계의 위험을 무시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매스미디어를 통해 대중과 정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나)의 입장이다. 따라서 리스먼에 대한 비판으로 정당하지 않다.

④ 순응주의는 개인의 개성이 아닌 집단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타인지향형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 자율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리스먼의 입장을 볼 때, 순응주의는 리스먼이 추구하는 바로 볼 수 없다.

⑤ 매스미디어가 현대 사회 집단의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보기>의 입장으로 볼 수 없다. <보기>는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지역 사회 집단이 개인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5. ㉒  
(나)의 필자는 매스미디어가 권력층의 전횡을 고발한다는 입장으로, 이는 발달한 미디어 기술로 인해 권력층이 미디어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매스미디어가 권력층의 통제를 벗어나 대중과 지배층이 쌍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따라서 매스미디어가 권력층의 통제를 받는다는 선지의 진술은 (나)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6. ㉑  
리스먼은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온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㉑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을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볼 것이다. 한편 (나)의 필자는 현대의 매스미디어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구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역으로 또래집단에서 유행하는 상품이 오히려 미디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㉑과 같은 현대 매스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이 여론을 주도할 수도 있다고 볼 것이다.

① SNS가 갑의 소비 패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 갑은 병 정당의 지지자로, 병 정당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갑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전통지향형 사회는 사회 구성원이 전통과 과거를 추종하는 데서 주요 행위 기준을 찾는 사회이다. 이는 과거의 집단적 특성이었으나, 리스먼은 타인지향형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전통지향형 사회 역시 전통적 집단의 가치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자율형 인간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통지향형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리스먼의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다.

③ ㉑은 정당 홈페이지에 갑이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스미디어가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리스먼의 입장에서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 정치 참여를 하는 ㉑을 문제점으로 삼지도 않을 것이다.

④ ㉑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 민주주의의 체계를 무너트릴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사고에 자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리스먼의 입장이다. (나)의 필자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7. ㉓  
㉑의 ‘공유’는 ‘정보나 의견, 감정 따위를 나눔’의 의미이므로, 가장 적절한 선지는 3번이다.

18. ㉑  
소사마의 대답에서 ‘아리따운 태도는 천고의 가인이라. 연역한 허리와 가느다란 눈썹은 남자의 품모가 적으나’에서 남만장수가 여성일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이어지는 서술에서 홍량이 사부의 명으로 남만 왕을 도우러 왔다는 내용과 연결되어 남만장수가 홍량임을 독자들이 추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① 양 원수의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② 양 원수는 여전히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③ 양 원수는 홍량이 남만장수임을 모르고 있으며, 소사마 역시 남만장수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소사마는 남만장수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저 본 대로 양 원수에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19. ㉑

㉠에서 창곡은 현재의 경험을 통해 강남흥의 빼어난 외모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옛 책'에서 본 경험과 결부하여 강남흥에 대해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인'과 같다고 느끼며 경탄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홍량은 교방에서 허다한 사람들을 보았으나 오히려 창곡과 같은 기이한 남자를 본 일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옥피리를 통해 주변의 군중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다시 올리려는 것은 맞으나 희생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희생적 태도는 죽음, 하강의 이미지와 미래지향적 태도가 겹쳐 드러나야 한다.

㉣ 창곡이 소사마에게 질문한 것은 남만장수에 대한 궁금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려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잇을 수 있으리이까'에서 대상에 대해 강렬한 인상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어지는 발화에서 이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놀라움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

20. ㉠

[A]에서는 남만 장수의 능력이 뛰어남을 한탄하며 '하늘이 우리 명나라를 돕지 않고 조물주가 나의 큰 공로를 시기해 인재를 내어 남만 왕을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양 원수의 목적이 실패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고전 문학에서 하늘이 돕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은 운명론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지, 이것이 실패의 원인을 하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B]에서는 '옥피리가 본디 한 쌍으로 한 개는 문창성에게 있으니 그대가 고국에 돌아갈 기회가 이 옥피리에 달려 있노라 하셨'다는 백운도사의 말을 떠올리며 옥피리를 본 상대가 양창곡임을 추측하고 있다.

㉣ [A] 뒷부분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인물의 행동과 [B] 앞부분의 '망연자실'하다는 부분에서 현재 상황이 인물들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A]와 [B]에 모두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 ㉡

초라한 외양과 달리, 좌중을 압도하는 기색을 보이며 '용이 바람과 구름을 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홍량의 주관적 평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홍량이 창곡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미래의 사건에 대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암시는 서사 구성에 의한 것이지, 인물의 주관적 평가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 인과 관계가 적절하지 않다.

㉠ '기녀 100여 명이 꽃발을 이루고 제각기 어여쁜 얼굴을 자랑'한다는 표현에서 기녀들의 아름다움을 꽃발에 빚대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기>에서 감각과 관련된 표현이 인물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홍량의 이미지를 '쌀쌀하면서도 총명'하다고 한 것은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양 원수가 '장자방이 계명산에 올라 통소를 불어 초나라 병사들을 흠어지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적군인 남만 진영에서 들린 옥피리 소리를 지칭하는 것이다. 양 원수는 '이 밤 옥피리 ~ 도움이로다'라는 생각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옥피리라는 청각적 이미지가 인물의 고민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양 원수가 옥피리를 불자 그 소리르 '봄 물결'같다고 표현한 것은, 이어지는 군중이 자연히 평온해지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양 원수가 부는 옥피리 소리가 매우 아름다워 인

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홍량이 옥피리로 화답한 소리를 듣고 '봉황 암수가 화답함과 같다'고 느낀 이후의 생각을 보면, 홍량은 옥피리를 분 명나라 장수가 문창성, 즉 양창곡임을 깨닫고 있다. 따라서 이는 <보기>에서 사건에 대한 암시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헤어진 두 남녀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2. ㉤

(가)는 '옥주봉, 경천대, 잔나비, 학, 갈매기'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투영하고 있고, (나)는 총석정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수사로 표현하고 있다. (다)는 '해, 달, 구름'과 더불어 자연물에 해당하는 '만물'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3. ㉢

'솔과 국화 쓰다듬고 잔나비와 학을 벗하니'에서 (가)의 화자는 옥주봉, 경천대에서 자연물과 함께 지냈음이 드러난다. 한편 (나)에서는 '바람 불면 못 보려니'를 통해 기상 상황에 따라 총석정의 정경을 감상하거나 하지 못할 수도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24. ㉣

화자는 '갈매기들'이 '맹세 기약'을 웃음에도 '값고 다시 돌아오리라'는 서술을 통해 언젠가 다시 자연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보기>에서 '말은 바 소임을 다하고 다시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서술을 고려하였을 때, 화자는 미래지향적 태도로 다시 자연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지, 되돌아가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25. ㉤

'장원으로 높이 뿔히고 재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실로 고인이 말하는 양주가학(養珠家學)'이라는 문장에서 '양주가학'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말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름다운 문장을 창작하는 능력과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양립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

에 오르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양주가학'이 지칭하는 범주에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것이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26. ㉣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아름다운 것만을 독점하게 할 수는 없었으므로, 뿔이 있는 것에게는 치아(齒牙)를 버리게 하고, 날개가 있으면 두 다리만 있게 했'다는 것은 세상 만물이 가진 아름다움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는 이치를 드러낸 것이다. 이를 옛 성현들의 문장이 뛰어났지만 높은 지위에는 오르지 못한 것을 제시하며 세상 만물과 인간의 이치의 유사성을 토대로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27. ㉣

㉔은 총석정에 오른 화자가 총석정의 뒷면에 오른 것을 보고 전면도 확인하겠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이는 총석정의 전체적인 면모를 모두 관망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한 아쉬움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으며, 더불어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와 풍류라는 (나)의 주제의식에서도 크게 벗어난 내용이다.

① 화자가 '상봉산 별천지를 처음에 들어올 때'를 전나귀에 발 없는 구리술을 신고 돌아오는 구체적인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다.

② '적막한 산골'에서 공간의 고요한 이미지를, '더욱 좋다'에서 장소에 대한 화자의 애착을 엿볼 수 있다.

③ ㉔은 앞 행의 '악비'와 '조적'의 고사와 연결되어 청나라에 굴욕을 당한 현재의 상황에서 화자가 나라를 위해 복수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냈으므로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강조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문장' 자체는 구체적인 소재일 수 있으나, '완성된 문장'은 완결성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㉔은 이를 해, 달, 구름 등의 자연물에 빗대어 구체화하며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28. ③

위 소설은 '그'의 경험과 상념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외부의 전지적 서술자가 '그'의 사고에 초점을 맞춰 내면 심리 위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① '이제 몇 발의 총성과 더불어 그는 무참히 쓰러지고 말 것이다'에서 인물이 관찰하는 대상에게 일어날 사건을 추측하고 있으나, 시점을 고려할 때 이는 서술 주체가 관찰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과거 행위를 바탕으로 추론하고 있지 않다.

② 인물의 경험과 상념(상상)으로 서술이 구분되고 있는 것은 옳으나, 이것이 대화를 바탕으로 통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화 상황에서 인물의 상상과 관련된 내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④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힌 '피해자'는 '인간으로서 죽어 간다는 것, 이것이 한없이 기쁠 뿐'이라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서술 초점의 주체가 아니다. 초점의 주체는 '그'이다.

⑤ 윗글은 '그'의 의식을 두서 없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짜임새가 없으며, 구성의 인과관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 29. ①

'분위기의 심화'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 모든 서술을 의미한다. '흰 눈'은 처형을 당해 쓰러진 주인공의 상황과 대비되어 흰색의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상황의 비극성을 심화하고 있다.

### 30. ④

'동일시'는 대상에 대한 정서나 정감, 태도를 닮은 것으로 인식하는 정신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청년의 걸음이 '침착'한 것은 청년이 죽음 앞에서 존엄성을 지키는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 '그'가 그러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니며, 단지 '그'가 느낀 청년의 걸음걸이의 느낌일 뿐이다. 동일시는 대상에 정서 및 태

도가 이입되어 모방이 일어나야 하므로, '그'가 청년을 동일시켰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31. ④

'이 독길을 걸었을 거냐...' 이후 별판 너머 흰 눈을 보며 그는 '가슴이 탁 트이는 것'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보았을 때, 독길을 걸어가는 '그'의 심리는 불안하고 비참하다고 볼 수 없다.

⑤ 바로 직전에 '연발하는 총성'이 들렸음을 고려한다면, 그는 현재 총에 맞은 상황이다. 또, 이어서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같이 느꼈다는 점에서 실제로 그는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㉔은 실제 행위가 아닌 '그'의 의식에 해당한다.

### 32. ②

'외로된사업'은 '거울속'의 '나'가 추구하는 어떤 행위나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울밖'의 '나'는 '외로된사업'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이라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거울속 나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울속 나의 상황을 추측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므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33. ①

'거울'은 '거울 밖'과 '거울 안'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나'가 나뉘어 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바위'는 '붓꽃 무리'가 바위를 중심으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 공간으로 나뉘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34. ③

'무리가 우우우 옆으로 시퍼렇게 번지'는 것은 바위를 기준으로 여러 방향으로 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 구절은 <보기>에 따르면, 붓꽃이 하나의 방향으로 퍼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라, 붓꽃을 전제로 인식하던 지각을 바위를 중심으로 전복하여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① '거울'을 '조용한세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 통념을 벗어난 것이라면, <보기>를 토대로 볼 때 '나'가 '내말을못알아듣'는 것은 거울 밖과 안의 자아가 분열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만져보지못하는것'과 '만나보기라도'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거울의 이중적 속성에 부합한다. 한편 (나) '무더기'는 바위 가운데 모여 있는 아홉의 붓꽃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④ <보기>에 따르면 '붓꽃'이 무리지어 있는 사태를 각각의 요소로 분할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붓꽃 무리를 분할하는 것인 <보기>의 내용과 부합하며, 이를 바탕으로 통념을 뒤집는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가 '거울속의나'를 '근심하고진찰'할 수 없어 섭섭하다고 하는 것은 '거울속의나'를 '근심하고진찰'하고 싶어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는 자아를 통합하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나)에서 '그림자'가 '바위에 붙'었다가 다시 '바위에 붙지 않고' '바람'에 붙는 것은 붓꽃의 그림자가 시간에

따라 바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한다면 이는 그림자 역시 분할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 화법과 작문

#### 35. ②

발표자는 지진 발생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대비법을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발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제안된 방법이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청중에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비 방법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① 윗글은 청중의 의견을 조사하여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발표자가 지진 대비 방법을 직접 설명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며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③ 윗글은 역사적 배경을 연관 짓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지진 대비의 중요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실내외 대피 요령을 자료로 뒷받침하며 강조하는 방식이다.

④ 윗글은 지진 대비 이론을 비교·분석하지 않고, 실내외 대비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면서 자료를 통해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조이다.

⑤ 지진 대비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에 구체적 실내외 대비법을 체계적으로 나열하긴 하지만, 자료를 통해 대처 방법의 효과를 강조하는 방식이므로 나열에 중점을 둔 설명 방식과는 다르다.

#### 36. ④

자료 1과 자료 2는 각각 실내와 실외에서의 지진 대처법을 설명하고 있으나, "구조물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제시된 것은 아니다. 자료1은 실내에서는 진동이 멈추기 전까지 책상과 같은 구조물 아래에서 몸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 1은 실내 지진 발생 시 책상 아래로 피하는 대처법 외에도 전기와 가스 차단, 출구 확보 등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② 자료 2는 지진으로 인한 건물 파손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청중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③ 자료 1은 실내에서는 움직이기보다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⑤ 자료 1과 자료 2는 모두 이미지를 바탕으로 지진 대비 방법을 청중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37.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발표에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② 학생 2는 발표를 통해 가지게 된 의문점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과 상충되는 기존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발표의 효용성을, 학생 2는 발표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 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⑤ 학생 3은 배경지식과 발표 내용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어 학생 2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38. ②

학생 1은 토의의 진행자 역할을 맡아 각 항목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논의를 이끌며, 최종적으로 수정 사항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① 학생 1은 체육관 시설 보수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조명 교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학생 2이다.

② 학생 1은 토의를 이끄는 진행자 역할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수정 사항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체육관 개방 시간에 제한을 두는 방안과 안전 관리 인력 배치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학생 2와 학생 3이다.

④ 운동 기구 확충과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학생 2와 학생 3이다.

⑤ 환기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환기창 설치와 공기청정기 도입을 제안한 것은 학생 3이다.

#### 39. ④

(가)는 예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제안하고 있어, 학교 행정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① (가)에서는 체육관의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시설 보수, 환기 시스템 개선, 점심시간 개방, 운동 기구 확충 등의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②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개선의 중요성으로 언급되어, 체육관 개방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

③ 교장선생님께 건의드리는 형식으로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⑤ 개선 사항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언급하며, 요청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 40. ④

학생 2와 학생 3의 발언은 체육관 환기와 운동 기구 관리 방안을 제안하며 상호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며 의견 대립을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진행자로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종합하며 토의를 이끌고, 학생 2는 자신의 의견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어 적절하다.

② 학생 2는 조명 관련 개선 사항을 제안하여 체육관 보수의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학생 3은 환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③ 학생 1은 체육관 개방 시 필요한 안전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제안하고, 학생 2는 이를 보완해 자율적 사용 규칙과 관리 인력 배치 방안을 언급하여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⑤ 학생 1은 전체 의견을 종합하여 건의문 수정을 제안하며 토의를 마무리하고, 학생 2와 학생 3은 각각 자신의 개선안을 추가하면서 학생 1의 의견을 발전시키고 있어 협력적이다.

#### 41. ④

(가)의 운동 기구 확충 방안에서 배드민턴 라켓, 농구공, 줄넘기가 포함되어 있다. 줄넘기는 추가적인 운동 기구 신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가)에 포함되어 있는 줄넘기를 추가 요청 사항에 포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체육관 바닥재 교체와 조명 추가 설치 방안을 메모에 포함하였으며, 이는 학생 2의 제안을 반영하여 적절하다.

② 환기 시스템 개선 방안으로 환기창 추가 설치와 공기청정기 도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생 3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③ 점심시간 개방 시 학생들이 지켜야 할 기본 규칙과 사용 신청 절차를 포함하는 것은 학생 2의 제안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

⑤ 점심시간 동안 일정 시간만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학생 3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

42. ③

수정된 문단에는 점심시간 활용을 통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므로, (가)의 [A]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수정된 문단은 체육관 개선이 학생들의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할 것임을 이미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환기 시스템 개선의 중요성은 건의문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지만, 수정된 문단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 ④ 점심시간 체육관 개방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나, 수정된 문단에는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 ⑤ 학생들의 여가 활용을 위해 운동 기구 확충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43. ⑤

SNS의 긍정적 측면과 그 활용 방안은 초고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으로, 초고에는 SNS의 부정적 영향과 해결 방안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 ① SNS의 정의와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은 초고의 1문단에서 언급되었다.
- ② 학교 학생들의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에 대한 설문 결과는 2문단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 ③ SNS 사용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은 3문단에서 다루고 있다.
- ④ SNS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4문단에서 제시되었다.

44. ③

SNS의 과도한 사용이 학업과 정서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부각하고, 사용시간 제한 및 대안 활동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조언에 부합한다.

- ① SNS 사용으로 인한 학업 소홀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SNS의 유용성을 언급했으므로 조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② SNS 사용 습관 관리와 학업 우선순위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지 않고 SNS의 긍정적 역할을 추가로 언급하고 있어 조언과 다소 어긋난다.
- ④ 정보와 소통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문제점 부각보다는 일반적 설명에 가까워 조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 ⑤ SNS 사용을 경계하고 사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문제점을 부각하는 방식보다는 태도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결 방안에 대한 요약 없이 자신의 목표와 활동에 집중하는 태도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조언에서 요구한 "문제점 부각"과 "해결 방안 요약"이라는 요소가 부족하다.

45. ①

(가)의 자료는 학생들이 SNS에서 주로 접하는 내용의 종류를 보여 주고 있으며, SNS 사용 시간이 많음을 직접적으로 보충하는 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초고 2문단에 SNS 사용 시간의 많음을 보충하는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 ② (나)의 신문기사는 SNS의 과도한 사용이 청소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초고 3문단에 추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보완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 ③ (다)의 선생님의 조언은 SNS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초고 4문단의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적절하다.
- ④ (가)의 자료는 친구들의 일상과 연예인들의 일상이 SNS에서 큰 비중

을 차지함을 보여 주므로, 초고 3문단에 추가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형성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⑤ (나)의 신문기사는 SNS 사용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어, 초고 3문단에 추가하여 SNS 사용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이유를 보완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 언어와 매체

35. ①

'아주'는 어근 자체가 부사로 ㉠에 해당하고, '성실하게'는 부사형 어미 '-게'가 붙어 ㉡에 해당하므로, ㉠과 ㉡이 모두 포함되어 적절하다.

② '조용히'와 '갑자기'는 어근 자체가 부사로 ㉠에 해당하지만, ㉡에 해당하는 부사어가 없어 적절하지 않다.

③ '맛있게'는 부사형 어미 '-게'를 통해 부사적 의미를 가지며 ㉡에 해당하지만, '기쁜'은 관형어로, 부사가 아니라 명사를 꾸며 주는 문장성분 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친절하게'와 '밝게'는 부사형 어미 '-게'가 붙어 ㉡에 해당하지만, '서로서로'는 명사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⑤ '잘', '목청껏', '아주', '천천히'는 모두 어근 자체가 부사로 ㉠에 해당하지만, ㉡에 해당하는 부사어가 없어 적절하지 않다.

36. ②

'논리적'은 명사로, 조사 '으로'가 붙어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논리적'이 형용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아주'는 어근 자체가 부사어로, '논리적으로'를 수식하며 정도를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③ '또박또박'은 어근 자체가 부사어로, 발화 방식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며, 문장에서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므로 적절하다.

④ '드디어'는 학생들이 발표에서 의견을 밝혔다는 문장 자체를 수식하지 않고, 발표를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기대감을 표현하므로, 문장에 대한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⑤ '또박또박'의 위치를 '논리적으로' 앞으로 옮기면 의미 변화 없이 강조되는 부분이 달라지므로 적절하다.

37. ②

'쓰다1'과 '쓰다3'은 별개의 표제어로 다의어가 아닌 동음이의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쓰다1'과 '쓰다2'는 연결 어미 '-어'가 결합되면 '써'로 활용되므로 적절하다.

③ '쓰다1' ㉠의 유의어로 '저술하다'를 드는 것은 적절하다.

④ '쓰다2' ㉠의 반의어로 '감미롭다'를 드는 것은 적절하다.

⑤ '쓰다3' ㉠의 용례로 '광부들이 석탄가루를 쓰다'를 드는 것은 적절하다.

38. ②

㉠과 ㉡에는 모두 3개의 절이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은 '그가 아끼던 제자가 상을 받았음을 그녀가 알려 줬다'라는 구조에서 명사절 '그가 아끼던 제자가 상을 받았음', 그 안에 포함된 관형사절 '그가 아끼던', 그리고 주절 '그녀가 알려 줬다'로 총 3개의 절을 포함한다. 반면 ㉡은 '나는 기다렸고, 동생은 책을 읽었다'라는 두 개의 주절에, 첫 번째 주절 '나는 기다렸고' 안에 명사절 '형이 오기를', 두 번째 주절 '동생은 책을 읽었다' 안에 관형사절 '형이 준'이 각각 안겨 있어 총 4개의 절을 포함하고 있다.

① ㉠은 안은문장이고 ㉡은 이어진문장이다. ㉠은 '그가 아끼던 제자가 상을 받았음을 그녀가 알려 줬다'라는 하나의 주된 문장 안에 명사절과 그 속에 포함된 관형사절이 안겨 있다. 이에 반해, ㉡은 '나는 형이 오기

를 기다렸고, 동생은 형이 준 책을 읽었다'처럼 대등하게 이어진 두 개의 절을 포함하고 있어 이어진문장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③ ㉠에는 2개의 안긴절이 있다. ㉠에서 명사절 '그가 아끼던 제자가 상을 받았음'이 주절에 안겨 있으며, 이 명사절 안에 관형사절 '그가 아끼던'이 포함되어 있어, 각각 하나의 안긴절로 간주할 수 있다.

④ ㉠에는 명사절 안에 관형사절이 안겨 있다. 주절인 '그녀가 알려 줬다'에 안긴 명사절 '그가 아끼던 제자가 상을 받았음' 내부에 관형사절 '그가 아끼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는 명사절과 관형사절이 각각 안겨 있다. 첫 번째 주절 '나는 기다렸고'에는 명사절 '형이 오기를'이 안겨 있고, 두 번째 주절 '동생은 책을 읽었다'에는 관형사절 '형이 준'이 안겨 있어, 적절한 선지이다.

39. ⑤

㉠ '이르스보리이다'에서 주제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모두 쓰인 것은 맞지만, 높임의 대상은 '세존'이 아니라 '수달 자신'이다.

① ㉠과 ㉡은 각각 '須達(수달)'이와 '내'로 주어이며,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인 '이'가 포함되어 있다.

② ㉠ '邪曲(사곡)'은 모음조화가 잘 지켜진 형태로, 중세 국어에서의 모음조화 현상이 드러나 있다.

③ ㉠ '사르문'은 이어적기(연철) 방식으로 표기된 예로 볼 수 있다.

④ ㉠ '가료'와 ㉡ '이르스보리이다'에는 현대 국어의 '-겠-'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문법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추정이나 의지를 나타낸다.

40. ④

진행자는 반려동물 등록의 법적 의무를 강조하지만, 과태료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하지 않았다.

① 진행자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청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했다.

②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동안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③ 전문가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 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 제공에 도움이 된다.

⑤ 전문가가 방송 중 화면의 이미지를 통해 등록제 혜택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1. ⑤

'일부'는 단순히 등록 비용의 일부를 나타낼 뿐, 이를 강조하여 부담감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42. ①

시청자 1과 2는 등록제의 유익함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시청자 4는 추가 정보 확인 하고 있다.

② 시청자 2는 등록제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③ 시청자 5는 회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미지 자료가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④ 시청자 3은 추가 정보보다는 등록제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인다.

⑤ 시청자 3은 비용 부담을 강조하기보다는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

43. ①

<홈페이지>는 반려동물 등록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이퍼링크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② <홈페이지>는 반려동물 등록 절차나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지 않으며, 단지 등록제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③ <홈페이지>는 반려동물 등록 후의 구체적인 혜택을 시각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등록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④ <홈페이지>는 생애주기 관리에 대한 단계별 설명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등록제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⑤ <홈페이지>는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이후의 정책 변화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정보는 주로 등록제의 개요에 한정되어 있다.

44. ④

학생 D는 텍스트로 주요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① 학생 A는 이전 대화를 요약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여 늦은 학생에게 정보를 전달하였다.

② 학생 B는 사람들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준비하였다.

③ 학생 C는 가을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가을 풍경 이미지를 업로드하였다.

⑤ 학생 C는 이미지 파일을, 학생 D는 텍스트 자료를 공유하여 포스터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45. ⑤

포스터의 프로그램 내용은 간단히 나열되었으며, 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① 포스터 상단에는 축제명, 날짜, 장소가 눈에 잘 띄게 배치되어 있다.

② 포스터 배경에는 가을을 상징하는 단풍 이미지가 포함되어 가을 축제 분위기를 잘 전달하고 있다.

③ 프로그램은 주요 활동을 간결하게 나열하여 축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④ QR 코드를 통해 사람들이 추가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